

- 주요 뉴스: 러시아와 우크라이나, 양국의 입장 차이가 여전. 다만 평화 교섭은 지속
 - OECD,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1%p 하락할 가능성
 - ECB 총재, 금리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방침. 통화정책의 유연성 시사
 - 영란은행, 0.25%p 기준금리 인상. 인플레이션 억제 등이 배경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FOMC 불확실성 해소와 러시아 채무불이행 우려 완화 등이 영향

주가 상승[+1.2%], 달러화 약세[-0.6%], 금리 하락[-1bp]
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양호한 기업 펀더멘털 부각 등이 반영
유로 Stoxx600지수는 원자재 관련주의 강세 등으로 0.5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미국 금리인상 경로 선반영 등이 매도 증가로 연결
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.5%, 0.1% 상승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 등이 배경
독일은 영란은행의 향후 완화적인 통화정책 가능성 등으로 1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11.5원, -3.3원) 0.3% 하락, 한국 CDS 하락

		3/17일	3/16일	전일대비			3/17일	3/16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411.7	4,357.9	1.23%	국채 금리 10y	미국	2.17%	2.18%	-1bp
	유럽	450.49	448.45	0.45%		독일	0.39%	0.39%	-1bp
	중국	3,215.0	3,170.7	1.40%	CDS 5y	한국	28bp	30bp	-2bp
	일본	26,653	25,762	3.46%		중국	53bp	60bp	-7bp
	한국	2,694.5	2,659.2	1.33%	위험 지표	EMBI+	-	551	-
환율	달러지수	98.03	98.62	-0.60%		VIX	25.67	26.67	-3.75%
	유로화	1.1091	1.1035	0.51%		WTI유	102.98	95.04	8.35%
	엔화	118.60	118.73	0.11%	원자재	구리	468.4	458.8	2.08%
	위안화	6.3470	6.3526	0.09%		금	1,942.9	1,927.3	0.81%
	원화	1,214.3	1,235.7	1.76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, 양국의 입장 차이가 여전. 다만 평화 교섭은 지속

- 관계자들에 따르면, 양국 모두 이번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은 불확실.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서 전쟁을 멈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어떠한 신호도 볼 수 없다고 발언
- 러시아 측 인사들은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를 논의하고 있지만, 군사작전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. 크렘린궁의 페스코프 대변인도 양국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뉴스는 오보라고 지적
-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1991년 소련의 붕괴 당시 설정된 국경선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. 한편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 중국 시진핑 주석은 3/18일(금)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전화 회담을 가질 예정
- 로이터에 따르면, 러시아 정부가 국채 이자지급을 위해 달러화를 외환거래기관 JP모건에 송금. JP모건은 이를 처리한 후 지급 대리기관인 씨티은행에 입금했고, 이후 씨티은행은 해당 자금을 채권자들에게 이체. 러시아 채무불이행 우려는 다소 완화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OECD,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1%p 하락할 가능성

- 특히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큰 유럽 경제가 1.4%p의 성장을 하락을 겪을 수 있고, 미국의 경우 0.9%p의 하락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. 한편 물가상승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들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평가

■ IMF, 연준의 금리인상은 적절. 다만 통화긴축 선회는 일부 신흥국에게 위험 요인

- 라이스 대변인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번 결정은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평가. 다만 달러화 자금조달 의존도가 큰 신흥국들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

■ JP모건, 글로벌 주가 조정은 막바지 국면에 진입

- Mark Kolanovic 스트래티지스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며 주가 조정도 끝날 것 같다고 분석.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. 신흥국, 기술주, 바이오 등 베타 계수가 높은 부문의 주식이 유망하다고 전망

■ ECB 총재, 금리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방침. 통화정책의 유연성 시사

- 라가르드 총재는 자산매입 종료 이후 금리인상을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며, 해당 조치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언. 레인 이사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 가격 하락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
-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뉓 총재는 7월에 자산매입을 종료하고, 9월부터는 금리인상이 가능하지만 구체적 시기는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

■ 영란은행, 0.25%p 기준금리 인상. 인플레이션 억제 등이 주요 배경

-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.5%에서 0.75%로 인상. 이는 코로나 19 이전과 동일한 수준.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경제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음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부연
- 다만 향후 추가 긴축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다소 신중한 모습. 향후 통화긴축이 적절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, 중기 전망 측면에서는 관련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는데, 이는 지난 회의에서 추가 긴축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과 상이

■ 중국 주석, 보다 효과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으로 경제 영향 최소화할 필요

-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의 조기 억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. 감염 확산이 심각한 지역의 당국자는 관련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발언

■ 일본은행 총재,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목표 수준 하회

- 구로다 총재는 에너지가격이 큰 폭 올랐지만,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2%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. 이에 통화정책 정상화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3/17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3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(만건): 21.4, 전주(22.9), 예상치(22)
- 미국 2월 건설허가건수(만건): 186, 1월(190), 예상치(185)
- 미국 2월 주택착공건수(만건): 177, 1월(166), 예상치(169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3/18 현지시각 기준)

- 연준 보우먼 이사 강연,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, 미국 2월 기존주택판매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과 중국의 상반된 통화정책, 지속 여부는 불확실 - 블룸버그

(The Fed and China Go to War Against Different Foes)

- 미국 연준은 3월 FOMC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했을 뿐 아니라 향후 금리경로도 상향 조정하며 인플레이션 대응에 초점. 반면 중국 통화당국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주요 정책금리 인하 등 완화기조를 유지.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경제에 긍정적
- 다만 양국 통화정책의 지속 여부는 미지수. 연준의 향후 금리인상은 중립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나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확대 등이 변수로 작용할 소지. 중국의 경우 코로나 사태에 따른 봉쇄강화 등이 정책 시행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

■ 연준의 통화정책 성공 여부, 정확한 중립금리 수준 판단이 관건 - 블룸버그

(The Fed Is Basically Just Guessing About Interest Rates)

- 연준은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방안을 통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.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중립금리 수준을 파악하고,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. 그렇지 않을 경우 경기침체 혹은 경기과열을 초래
- 다만 그동안 완화적 통화정책이 장기간 지속되었기에 지금은 중립금리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인플레이션 억제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. 또한 현재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결정에서 금융시장의 불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

■ 중국의 주택시장 안정화, 당국의 구체적인 정책 시행이 요구 - WSJ

(China's Housing Market Needs More Than Talk From Beijing)

■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영향, 시장 예상을 넘어설 가능성 - Financial Times

(Economic impact of war in Ukraine could go from bad to worse)

■ 기업의 비용 부담 전가,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 저항에 직면 - WSJ

(Shoppers Reach Their Limits on Some Price Increases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